문항카드 1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1교시 /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예술지상주의, 심미주의, 도덕주의, 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 순수예술론, 참여예술론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예술은 새롭게 느끼고 생각하게 함으로써 인간과 현실과 세계를 신선하게 경험하도록 한다. 예술의 언어는 인간을 폭넓게 이해하며, 현실의 숨은 모습을 드러내고, 세계의 깊이를 자각하게 한다. 기존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대상의 변형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러한 변형 가능성은 새 세계를 개시(開示)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보편성에 대한 예술의 대응 방식이 철학, 사회과학 혹은 자연과학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술은 처음부터 보편성이나 전체성을 말하지 않는다. 그렇듯이 '미(美)' 혹은 '인간성'을 직접 말하지 않는다. 프로파간다 예술1)이나 사회주의 리얼리즘2)에서는 이를 직접 말하기도 하지만, 이런 종류의 작품이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옳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과 좋은 이념은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버거운 것이다. 자유와 정의, 평등과 인권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은 시종일관 반성되지 않으면 거짓이기 쉽다. 검토와 비판을 허락하지 않는 보편성은 가짜이다. 참된 보편성은 개별적 경험과 특수한 사례의 지속적 검토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보편타당한 원리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리의 갱신 가능성을 구체적 경험 속에서 늘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보편성의 검토 작업에서 예술의 위치, 역할, 메커니즘은 독특하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술은 개념적인 추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에 천착하고, 둘째, 이를 보편성의 지평 안으로 유도하여 재해석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예술은 구체적 보편성 혹은 개별적 일반성의 차원으로 나아간다. 특히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이야말로 예술의 제1덕목이다. 이러한 밀착을 통해 예술은 흩어지고 무너지고 짓밟히고 외면된 것을 새롭게 읽어내고자 한다. 예술의 저항은 선언의 낭독이나 거리에서의 궐기 같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며, 설명이나 진단 혹은 분석과 같은 사회과학적 방식 또한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술이 단순히 운명의 필연성에 복속되지 않고 그 나름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미세하고도 오랜 파문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매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은 실천적이지만 행동주의적인 것이 아니며, 성찰적이지만 사변적인 것은 아니다. 심미적 개입은 사유와 실천 사이에서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밀착하는 가운데 부단히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예술은 운명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면서 우리를 더 넓고 깊은 행복으로 이끌고 나아간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술작품을 놓고 그것이 뜻하는 바에 대한 진위나 가치를 따질 수는 없다. 그런 방식으로 예술작품을 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예술작품이 아닌 것이다. 시나 소설과 같은 예술작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와 달리, 객관적 사실을 표상하거나 구체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쓰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한 예술작품에 대해 말할 때, 예술가의 의도나 생각과 같은 비언어적 맥락은 예술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 예술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의 의도일 수 없다.

주1) 특정한 이념, 상징, 인물, 사건 등에 대한 표상을 남기거나 제작자가 의도하는 사회적 정체성을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술

주2)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현실을 형상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하는 창작방법론

<제시문 2>

예술작품이란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하나의 형식이다. 이 추상화된 형식은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형식을 단순히 추상적 도안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형식은 표상적이고 재현적이며 함축적인 요소의 결합체이다. 형식을 이렇게 해석할 때 예술에 적용되는 의미가 풍부해지고 인간의 가치 위계에서 당연히 높은 위치를 점하게 된다. 많은 예술가가 자신을 위해 작품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규범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사회적인 반응과 수렴을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예술가는 예술 경향의 여러 갈래 속에서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을 통해 인성을 창조하며, 인간적 고뇌와 고통을 풀어보려 노력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는 현세의 이상향을 찾아 나서기도 한다. 실제로 모든 종류의 가치, 이를테면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과학적 가치 등은 적절한 환경 아래에서 미적으로 관조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예술이 인간의 모든 가치 영역을 표현하거나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이 직접적인 혹은 특별한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언제나 고귀한 존재로 남을 수 있게 해준다.

예술은 인간을 감성적,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측면에서 교육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자 예술은 독자에게 과학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진실성을 보여주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의식과 지식의 폭을 넓혀주며, 도덕적 감수성을 고양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위대한 소설을 읽었을 때, 훌륭한 연극을 보았을 때, 우리는 흔히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거나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을 관람한 후에 우리는 그동안 알아왔던 세계가 뒤바뀌고 뒤집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작품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속에 안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또한 세계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하고, 새로운 감각으로 우리 자신을 느끼게 하며, 행위의 의미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게 한다. 예술을 통한 이러한 경험은 비단 문학작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그림을 보았을 때, 멋진 무용을 구경했을 때, 훌륭한 음악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예술작품과의 접촉을 통해 우리는 사물 현상을 다른 차원에서 신선하게 느끼며, 우리의 행위를 새로운 도덕적 척도에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계와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제시문 3>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선하게 한다. 평화로운 음악은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하고 상호 공경하게 하여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엄숙하고 장엄한 음악은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여 어지럽지 않게 한다. 그러므로 마음을 감동시키고 풍속을 바꾸는 데에는 음악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음악은 사람 각자의 심성을 교화시키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의 조화로움을 지향한다. 이를 유가(儒家)에서는 예교(禮敎)와 악교(樂敎)를 통합하여 '예악교화(禮樂敎化)'라고 이른다. 예악(禮樂)은 사람들이 도덕적 선(善)을 성취하는 도덕 수양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예(禮)는 이지(理智)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고, 악(樂)은 감정의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이지는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고, 감정은 화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의는 인륜 관계를 구별하여 각자 자신의 위치를 편안히 여기고 그 직분을 담당하게 하며, 음악은 집단의 감정을 조화롭게 하고 의사소통을 통하여 마음을 융합하게 만든다. 어느 학자는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화합하며, 예는 인륜 관계의 차이를 구별한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예악의 상대적 역할과

조화를 말한 것이다. 또 『예기(禮記)』에서는 “음악은 안에서부터 나오며, 예는 밖에서부터 생겨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예와 악이 하나는 안에서, 하나는 밖에서 상호 조절하여 이지와 감정 모두 평정을 얻게 된다. “음악이 잘 통하면 원망이 없고 예가 잘 통하면 다툼이 없으니, 서로 양보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예악을 두고 한 말이다”라는 구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악을 통합하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악의 효용을 의미한다. ‘마음을 다하여 변화를 극진하게 하는 것’은 음악이 마음 깊숙한 곳을 울려 감정의 변화를 극진히 하는 것을 뜻하며, ‘성실함을 밝히고 허위를 제거하는 것’은 예가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거짓 행위를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음악이 행해지면 뜻이 맑아지고, 예를 닦으면 덕행이 이루어진다”,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완성된다”는 등의 말은 예술과 도덕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체로서 거듭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음악이 나쁜 풍속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니 천하가 모두 태평해진다”라는 말은 예술이 결코 인간의 공동체적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삶을 인격적으로 고양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적 차원이나 공동체 차원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예술이 된다.

<제시문 4>

예술은 의미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적인 질과 구상(構想)의 문제이다. 예술의 재료가 의미중립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것이든, 우리는 예술의 재료와 이 재료로 만들어진 예술작품을 구분해야 한다. 예술작품의 창조나 감상에 대한 관심은 재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로 만들어진 결과물에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바로 예술작품이 될 수는 없으며, 사람들이 흥미나 감흥을 느낄 때에만 비로소 ‘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술의 관심이 사회의 규칙과 원리에 포함된다는 시각이나 이러한 원리를 예술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미적 창조와 감상 모두에 유해한 것이다. 미적 대상은 인식적인 가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감각적이거나 형식적인 성질 자체를 깨달았을 때의 순수한 기쁨에서 정당성을 얻는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양 있고 선택된 사람의 특권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운문(韻文)의 수려함, 비유적 표현의 다양함과 풍부함, 그리고 구성의 탁월함 때문에 상찬을 받는다. 예술가의 창조성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된다.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상업주의는 도구적 문화를 요구하며 예술의 유용성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음미되는 가치 자체만으로 예술은 존재의 이유가 있다. 예술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역사, 사회, 그리고 개인의 맥락과는 단절된 자율적 유기체이다. 계산될 수 있는 한에서 세계는 과학의 지배를 받기 마련이지만, 예술의 왕국은 ‘계산될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 예술은 매 순간 자기 충만성을 향유하게 하며, 경험을 생기 있게 하고, 경험이 지닌 상상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즐기게 한다. 좋은 삶이란 경험의 매 순간을 풍부하고 정열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을 사랑하는 것이야 말로 좋은 삶의 원천이 된다.

3. 출제 의도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사고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은 예술 및 예술 가치를 바라보는 상반된 두 입장인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 미적 가치) 관점과 도덕주의(윤리적 가치) 관점을 구분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두 입장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입장이 지닌 한계 혹은 문제점을 이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 국어
<table>
<tr><td colspan="2">과목명 : 독서</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td><td>[문제 1]
제시문
1, 2, 3, 4</td></tr>
<tr><td>성취기준 2</td><td>[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td><td>[문제 1]
제시문
1, 2, 3, 4</td></tr>
<tr><td>성취기준 3</td><td>[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d>[문제 1]
제시문
1, 2, 3, 4</td></tr>
<tr><td>성취기준 4</td><td>[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d>[문제 1],
제시문 3, 4</td></tr>
<tr><td colspan="2">과목명 : 화법과 작문</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 1]</td></tr>
</table>
2. 교과명 : 도덕
<table>
<tr><td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td><td>[문제 1]
제시문
1, 2, 3, 4</td></tr>
</table></td></tr>
</table>

나) 자료 출처

교과서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7	152-162	제시문 3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17	150-157	제시문 3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50-158	제시문 2, 3, 4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7	154-161	제시문 1, 3, 4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17	148-155	제시문 1, 2, 3, 4	예

교과서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순자의 철학	차이런호우 지음 천병돈 옮김	예문서원	2000	190-192	제시문 3	예
예술과 사회 이론	오스틴 해링턴	이학사	2014	139-148	제시문 4	예
예술과 인간 가치	멜빈 레이더 버트럼 제섭	까치	2001	309-328	제시문 2	예
심미주의 선언	문광훈	김영사	2015	68-72	제시문 1	예
예술철학	박이문	문학과 지성사	2021	143-145 226-228	제시문 1, 2	예
철학, 예술을 읽다	철학아카데미	동녘	2006	111-121	제시문 2	예
정치적 올바름 vs. 예술의 자율성 – 다문화시대 문학의 운명	임경규	문학동네	2017	24권 4호 1-23	제시문 4	예
미술의 사회적 기능	유인수	경제포커스	2020	N/A	제시문 2	예

관련교과서근거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2-19	[문제 1]	예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8	14-16	[문제 1]	예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8	14-17	[문제 1]	예

5. 문항 해설

[문제 1]은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 미적 가치)'와 '도덕주의(윤리적 가치)'라는 두 가지 관점에 근거하여 예술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상반된 입장에서 설명되는 예술의 미적 가치와 선의 가치에 대한 제시문들을 나열하고, 그것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 요약하라는 문제이다. 총 4개의 제시문은 예술의 가치에 대한 상반된 관점에서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 미적 가치)와 도덕주의(윤리적 가치)적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 1]에서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 분류하고 그 요지를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들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에서 발췌해 출제진이 재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지문 이해와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제시문의 분류와 요지는 아래와 같다.

ⅰ)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 미적 가치): <제시문 1>, <제시문 4>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미적 가치의 구현 그 자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입장은 예술에 보편타당한 가치를 적용하려는 시도나 사회적 맥락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에 대해 반대하며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하는 순수예술론을 지지한다. 예술지상주의는 예술은 오직 예술 그 자체만을 표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한다.

ⅱ) 도덕주의(윤리적 가치): <제시문 2>, <제시문 3>

예술은 도덕·윤리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예술은 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며, 사회적·정치적·도덕적·역사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예술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공동체적) 차원 모두에서 도덕성과 윤리성을 고양하여야 하고 예술의 교육적 역할과 기능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술은 개인이 도덕적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회적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1>

예술은 인간과 현실과 세계를 신선하게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예술은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밀착함으로써 구체적 보편성, 개별적 일반성으로 나아간다. 예술에 대한 가치를 논할 때 보편적인 가치 또는 원리를 상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술작품의 의미는 예술가의 의도나 생각과 같은 비언어적 맥락에 따라 결정될 수 없다.

<제시문 2>

예술작품은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고 형상화한 하나의 형식으로서, 작가 자신의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덕적, 종교적, 경제적, 과학적 가치 등을 담고 있다. 예술은 인간이 감성적, 지적, 도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교육적 기능을 역시 담당하고 있다.

<제시문 3>

예술은 도덕과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인간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체로서 거듭날 수 있다. 예술이 결코 인간의 공동체적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삶을 인격적으로 고양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개인적 차원과 공동체 차원 모두에서 선을 추구하고 이를 지향하는 경우에만 진정한 예술이 된다.

<제시문 4>

감각적이거나 형식적인 성질 자체로부터 오는 순수한 기쁨이 미적 가치의 핵심이다. 아름다운 사물에서 '아름다움'의 의미를 찾아내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술을 감상하는 자세이며, 예술은 역사, 사회, 개인의 맥락과는 단절된 자율적인 것이다. 예술을 사회적 규칙이나 원리에 연결하는 것은 미적 창조와 감상에 모두 유해하다.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는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 미적 가치)'와 '도덕주의(윤리적 가치)'라는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창작성, 자율성, 형식성 등 순수예술, 예술을 위한 예술 및 예술지상주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과 '사회성, 도덕성, 윤리성 등 참여예술과 도덕주의 관점에서 예술을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 각각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들의 주장을 포괄하여 잘 정리되었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제시문 각각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상반된 두 입장의 내용을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을 감수해야 한다.

기본적인 독해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들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논지 전개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의 논점 차이까지 적절히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①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 미적 가치)와 도덕주의(윤리적 가치) 입장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 미적 가치)와 도덕주의(윤리적 가치) 입장을 정확하고 풍부하게 요약하였는가?

③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 미적 가치)와 도덕주의(윤리적 가치) 입장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였는가? (제시문 별로 요약하고, 통합적으로 요약하지 않은 경우 감점 요인)

- 채점 등급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제시문 1, 4>와 <제시문 2, 3>의 차이점이나 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하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통합적으로 잘 분석하여 기술한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분석하여 기술하고 있으나, <제시문 1, 4>와 <제시문 2, 3>의 차이점이나 관계를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답안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1, 4>와 <제시문 2, 3>을 종합한 입장의 핵심 논지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답안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에도 실패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 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7. 예시 답안

[문제 1]의 제시문은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와 도덕주의의 관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제시문 1>, <제시문 4>는 예술지상주의 관점이다. 예술의 목적은 '미적 가치'의 구현으로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제시문 1>은 예술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지향하려는 프로파간다 예술과 사회적 리얼리즘을 경계한다. 예술작품을 어떤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미 예술작품의 본연의 가치를 상실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예술작품의 심미적 특성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현실과 조우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은 기존의 외면되고 무너진 것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예술은 행동하지 않으면서도 실천적이며,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사회로 이끌어간다고 말한다. <제시문 4>에서 예술은 역사와 사회의 맥락에서 벗어나 단절된 자율적 유기체라 말한다. 따라서 '예술은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같이 예술의 유용성에서 그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통해 경험하는 순수한 '미적' 체험이 예술 본연의 목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사람들의 삶을 생기 있게 하고 좋은 삶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라고 강조한다. <제시문 1>은 감각적인 경험과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밀착을 중심으로 예술지상주의를 옹호하는 반면, <제시문 4>는 예술 그 자체의 목적성에 초점을 두고 순수한 아름다움에서 오는 예술적 기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은 구별된다.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예술에 관한 도덕주의적 관점이다. 예술은 올바른 품성을 기르게 하고, 훌륭한 모범을 제공하여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제시문 2>에서 예술작품은 사회와 상호관계 속에서 본연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본다. 사람들은 예술작품을 통해 인간의 진실성과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의식과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도덕적 척도 가운데 성찰하게 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 3>은 유가의 '예악교화' 사례를 들어 예술의 목적을 말한다. 유가에서 예악은 도덕 수양의 수단으로 악은 예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그 역할을 담당한다. 이처럼 진정한 예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선을 추구하고 도덕적·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제시문 2>는 예술은 도덕적 가치를 담고 있고 감성적, 지적, 도덕적 성장을 예술의 목적으로 강조하는 반면, <제시문 3>은 개인 차원에서의 선뿐만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예술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두 제시문은 구별된다.

문항카드 2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1교시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예술지상주의, 심미주의, 도덕주의, 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 순수예술론, 참여예술론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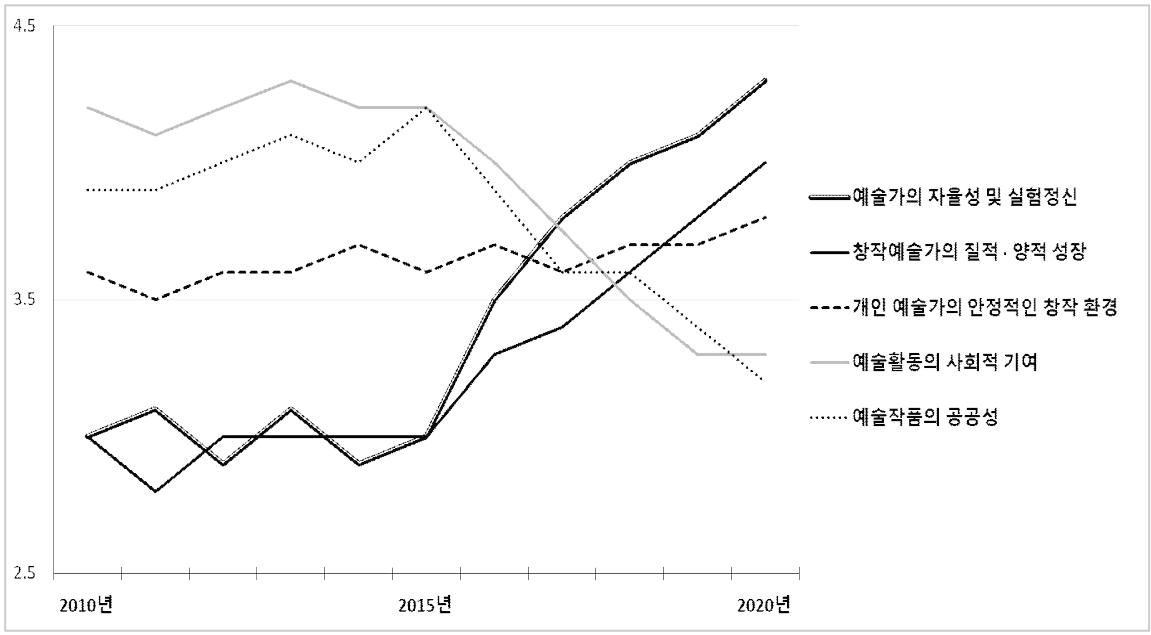
2. 문항 및 자료

[문제 2] <보기>를 읽고 [문제1]의 두 입장과 관련지어 <자료 1> ~ <자료 3>을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관계법령 개정 전후 변화에 대해 [문제 1]의 두 입장을 지지하는 논리를 각각 제시하시오. (40점)

<보기>

A국은 국가예술지원사업의 효과를 평가할 목적으로 매년 문화예술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예술활동 및 정부지원에 대한 가치인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2015년, A국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새로운 국가예술지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사업 시행 전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 국가통계도 축적·활용하고 있다. (관계법령 개정 전후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함)

<자료 1> 문화예술영향평가 지표 결과



주3) 각 항목에 대해 1점~5점으로 평가함. (점수가 높을수록 평가가 좋은 것을 의미)

<자료 2> 국가예술지원사업 관계법령 개정 전후 예술인 인식조사 비교

설문항목: 국가예술지원사업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010년~2014년 평균]

응답	응답률
우수한 예술작품의 창작	28%
관람객과의 교감	16%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15%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14%
사회에 대한 공헌	10%
안정적인 생활유지	8%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6%
자아성취감	3%
합계	100%

[2016년~2020년 평균]

응답	응답률
우수한 예술작품의 창작	30%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18%
자아성취감	15%
안정적인 생활유지	12%
관람객과의 교감	11%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7%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4%
사회에 대한 공헌	3%
합계	100%

주4) 인식조사의 표본은 매년 2만 명으로 동일함

<자료 3> 국가예술지원사업 관계법령 개정 전후 성과 비교 (단위: 횟수)

항목	2010년~2014년 평균	2016년~2020년 평균
순수창작예술 전시 · 공연	1,557	2,723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	734	496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	2,854	1,742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 · 공연 초청[5]	532	729

주5) 국내 예술가가 해외 유명 미술관, 음악회, 공연 등에 초청된 경우를 말함

3. 출제 의도

[문제 2]는 자료해석과 설명형 문항으로, [문제 1]에서 제시된 두 입장을 자료로 보여주고 수험생들이 각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자료 1> ∽ <자료 3>은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이 예술지상주의를 지향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과 도덕주의 관점에서 예술의 공공성 훼손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보여준다. 세 자료에 제시된 바를 토대로 자료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예술지상주의와 도덕주의의 두 가지 입장과 연관 지어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 colspan="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 colspan="3">1. 교과명 : 국어
<table><tr><td colspan="2">과목명: 독서</td><td>관련</td></tr><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td><td>[문제 2]
자료 2, 3</td></tr></table></td></tr>
</table>

성취기준 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 2] <보기>
성취기준 3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2]
성취기준 4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2] 자료 1, 2, 3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 2] 자료 1, 2, 3

2. 교과명 :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2]

나) 자료 출처

교과서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없음						

교과서외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1 문화예술정책백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22	124 ~ 126	자료 1	예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조사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1~28	자료 2	예

관련 교과서 근거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7	152-162	[문제 2]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17	150-157	[문제 2]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50-158	[문제 2]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7	154-161	[문제 2]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17	148-155	[문제 2]	예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2-19	[문제 2]	예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8	14-16	[문제 2]	예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8	14-17	[문제 2]	예

5. 문항 해설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의 사고가 요구된다.

첫째, 수험생은 <자료 1>에서 관계법령 개정(2015년) 이후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예술작품의 공공성'이 지속해서 하락했지만 '예술가의 자율성 및 실험정신', '창작예술가의 질적·양적 성장'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국가가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험생은 <자료 2>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를 묻는 예술인 인식조사를 통해 관계법령 개정 전후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자아성취감' 응답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과 '사회에 대한 공헌'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파악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이 예술지상주의를 지향한 결과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수험생은 <자료 3>에서 관계법령 개정 전후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의 횟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런 창작예술 분야의 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아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공연 초청' 횟수도 40%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와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의 횟수는 30% 이상 큰 폭으로 축소되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넷째, 수험생은 [문제 1]의 두 입장이 각각 <자료 1> ~ <자료 3>을 통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개정은 예술지상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술지상주의 입장에서 예술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적 구현' 그 자체가 목적이다. 예술가들은 정부의 예술지원 정책 방향이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와 '자아성취감' 등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도 <자료 1>에서 보듯 '예술가의 자율성 및 실험정신', '창작예술가의 질적·양적 성장'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자료 또한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 횟수의 유의미한 증가,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공연 초청' 횟수에서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덕주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법령 개정으로 예술의 공공성과 도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술인들이 '예술을 위한 예술'에 경도되어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예술작품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가벼이 여기거나 아예 무시할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료 3>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와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을 이해해야 한다.

6.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 ~ <자료 3>을 각각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② <자료 1> ~ <자료 3>을 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하였는가?
③ 각 자료의 내용이 해당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하는지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자료 1> ~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적인 설명을 충분히 제시한 답안
B: <자료 1> ~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연계하여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자료 1> ~ <자료 3>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정확히 연계는 하였으나, 각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여 두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은 답안
D: <자료 1> ~ <자료 3>을 정확히 이해하였으나, [문제 1]의 제시문들을 각 자료의 내용과 잘못 연결지었거나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만을 설명한 불충분한 답안
E: <자료 1> ~ <자료 3>을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을 제시한 답안
F: <자료 1> ~ <자료 3>을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7. 예시 답안

A국의 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으로 예술지상주의와 심미주의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1>을 보면 2010년에서 2015년까지 4가지 평가지표에 각각 변화가 있었지만, 방향성도 일정하지 않고 변화의 폭도 소폭에 불과한 데 비해, 2015년 이후 2020년까지의 변화는 방향성도 일정하고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예술작품의 공공성'이 지속해서 하락했지만 '예술가의 자율성 및 실험정신', '창작예술가의 질적·양적 성장'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관계법령 개정으로 국가가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명목으로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부분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2>에서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술의 가치를 묻는 예술인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관계법령 개정 전후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자아성취감' 응답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과 '사회에 대한 공헌'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정부의 예술지원정책이 예술지상주의와 심미주의를 지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 결과 <자료 3>에서 보듯, 관계법령 개정 전후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 횟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이런 창작예술 분야의 노력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공연 초청' 횟수도 40%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와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의 횟수는 30% 이상 큰 폭으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관계법령 개정은 예술지상주의와 심미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예술지상주의 입장에서 예술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적 구현' 그 자체가 목적이다. 예술가들은 정부의 예술지원정책 방향이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와 '자아성취감' 등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도 <자료 1>에서 보듯 '예술가의 자율성 및 실험정신', '창작예술가의 질적·양적 성장'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통계자료 또한 '순수창작예술 전시·공연' 횟수의 유의미한 증가,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공연 초청' 횟수에서도 증가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덕주의 관점에서 보면, 관계법령 개정으로 예술의 공공성과 도덕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예술인들이 '예술을 위한 예술'에 경도되어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와 '예술작품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가벼이 여기거나 아예 무시할 개연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료 3>에서 보는 것처럼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와 '공공 예술교육프로그램'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된 것이다.

문항카드 3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1교시 / 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화법과 작문,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예술지상주의, 심미주의, 도덕주의, 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 순수예술론, 참여예술론
예상 소요 시간	2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3] 한 설치미술가가 '빛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색과 질감을 표현하고자 동물의 가죽과 뼈, 새의 깃털 등을 활용한 작품을 국내 유명 미술관에 전시하였다. 예술가들은 이 작품의 전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3. 출제 의도

[문제 3]은 예술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인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와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동물의 가죽과 뼈'와 '새의 깃털'을 활용한 작품의 전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정당화하는 문제이다. 수험생은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사례를 활용하여 이러한 작품의 전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정당화해야 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 colspan="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 colspan="3">1. 교과명 : 국어
<table><tr><th colspan="2">과목명 : 독서</th><th>관련</th></tr><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td><td>[문제 3]</td></tr><tr><td>성취기준 2</td><td>[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td><td>[문제 3]</td></tr><tr><td>성취기준 3</td><td>[12독서03-01]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td><td>[문제 3]</td></tr></table></td></tr>
</table>

성취기준 4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 3]
과목명 :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 1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 3]
성취기준 2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 3]

2. 교과명 : 도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 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없음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해당없음						

관련 교과서 근거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과서	2017	152-162	문제3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차우규 외	금성출판사	2017	150-157	문제3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7	150-158	문제3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김국현 외	비상교육	2017	154-161	문제3	예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17	148-155	문제3	예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8	12-19	문제3	예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8	14-16	문제3	예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8	14-17	문제3	예

5. 문항 해설

[문제 3]은 ‘동물의 가죽과 뼈’와 ‘새의 깃털’을 활용한 작품 전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고 있다.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와 도덕주의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이해하고 이러한 작품의 전시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예술지상주의, 심미주의) 또는 반대하는 입장(도덕주의)을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다.

ⅰ) 예술지상주의(심미주의) 관점: 작품 전시를 찬성하는 입장 (제시문 1, 제시문 4 및 자료 1, 자료 2, 자료 3)
- 예술가는 자율성, 창의성 및 실험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예술가의 창조성이 예술의 목적이라는 입장 (제시문 1 및 자료 1, 자료 2, 자료 3 활용 가능)
- 색과 질감의 다양함을 통한 ‘미적 체험’으로 순수한 예술적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입장 (제시문 4 및 자료 1, 자료 2, 자료 3 활용 가능)

ⅱ) 도덕주의 관점: 작품 전시를 반대하는 입장 (제시문 2, 제시문 3 및 자료 1, 자료 2, 자료 3)
-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삶을 뒤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도덕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 (제시문 2 및 자료 1, 자료 2, 자료 3 활용 가능)
-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술의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의 실현을 통해서만 예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입장 (제시문 3 및 자료 1, 자료 2, 자료 3 활용 가능)

6. 채점 기준

- 채점 포인트

① 작품의 전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가?
② 자신의 입장을 [문제 1]의 제시문 및 [문제 2]의 사례를 이용하여 정당화하였는가?
③ [문제 1]의 상반되는 두 입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였는가?

- 채점 등급

A: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사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사례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미흡한 답안
C: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긴 했으나 선택의 근거로 제시한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찬성 또는 반대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7. 예시 답안

1) 작품 전시에 찬성하는 입장 (예술지상주의, 심미주의)

예술은 도덕성 함양이나 더 좋은 사회를 이끌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가 목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예술가의 자율적 창작 의지는 존중받아야 하고 이러한 의지를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예술가는 자율성, 창의성 및 실험정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예술가의 창조성이 예술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의 가죽과 뼈'와 '새의 깃털' 등을 전시하는 것이 동물복지나 동물보호 측면에서 인류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관람자는 색과 질감의 다양함을 통한 '미적 체험'으로 순수한 예술적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감각적 경험은 세계를 신선하게 느끼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를 통해 창작자와 관람자 모두 자기 삶을 향유할 수 있고, 자기 삶을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에 작품 전시에 찬성한다.

2) 작품 전시에 반대하는 입장 (도덕주의)

예술은 사회와 동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표현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예술을 위한 예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술의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의 실현을 통해서만 예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람자는 예술작품 감상을 통해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삶을 뒤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도덕적 성장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빛의 향연' 이름으로 '동물의 가죽과 뼈', '새의 깃털'을 전시하는 것은 동물복지나 동물보호 측면에서 인류의 도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관람자는 이러한 전시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느끼기보다는 생명에 대한 비윤리적인 인간의 행위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물론 예술가의 창작의지와 실험정신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은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삶의 인격을 고양하고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러한 작품 전시는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항카드 4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2교시 /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 화법과 작문, 경제,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협력, 경쟁, 상호 작용, 호혜주의, 효율성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사회적 상호 작용 방식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협력이 가능한 일반적인 요건은 두 가지이다. 첫째, 협력은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둘째, 호혜주의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결국 서로가 상대방을 도울 수 있을 때 협력이 가능하다. 그런데 도울 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협력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의 협력 덕택에 얻는 이득이 내가 협력할 때 치러야 할 비용보다 더 커야만 협력할 이유가 생겨서 상호 이득의 기회를 현실화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 당사자 모두가 상호 협력을 상호 배반보다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가 쉽지는 않다. 다음 두 이유 때문이다. 첫째, 나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단기적으로 더 이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를 돕도록 유도하고 싶어 한다. 둘째, 나는 남에게 큰 비용이 드는 도움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받을 수 있는 도움은 모두 받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하지만 일단 한 집단 안에서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협력이 자리를 잡으면 어떤 비협력적인 전략도 침범하기 어려워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협력이 배태될 수 있고, 온갖 다양한 전략이 뒤섞여 있는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으며, 또 일단 자리를 잡은 뒤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결과를 얻는데 개인이나 사회적인 환경의 특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개인은 논리적일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하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도 된다. 진화 과정은 성공적인 전략들이 자연적으로 번성하게 해 준다. 또한 개인은 서로 메시지나 약속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다. 말도 필요하지 않다. 행동이 말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개인 사이에 어떤 신뢰도 필요하지 않다. 호혜주의만으로 충분히 배반을 비생산적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타주의도 필요하지 않다. 성공적인 전략은 이기주의자한테서도 협력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협력의 창발과 성장, 유지에 꼭 필요한 개인과 사회 환경에 대한 가정이 몇 가지 있기는 하다. 우선 예전에 상호 작용했던 협력자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상대와의 과거 상호 작용 내력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인식과 기억의 요건을 맞추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박테리아조차도 단 하나의 상대하고만 상호 작용한다거나, 단 하나의 전략을 가지고 상대방의 가장 최근 행위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식으로 이런 요건을 충족시킨다. 박테리아가 할 수 있으면 사람도 할 수 있다.

<제시문 2>

인간의 노력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경쟁의 힘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한다. 이는 유효한 경쟁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서는 그 어떤 방법보다도 이것이 개별적 노력의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확신에 기초한 것이다. 나는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세심하게 배려된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만약 경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경제활동의 길잡이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더욱 열등한 방법이 경쟁을 대체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그리고 알려진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우리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경쟁을 우월한 방법으로 간주한다. 사실, 경쟁을 선호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의식적인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며, 특정한 직업이 그 직업과 연관된 불리한 점과 위험 요소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전망이 있는지 스스로 판가름할 기회를 각자에게 부여한다는 점이다. 경쟁을 사회 조직의 원칙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간섭을 배제해야 하지만 그 작동을 도와줄 수 있는 특정한 방식의 간섭은 인정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특별히 강조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는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한 어떤 가격에서건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고, 팔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생산하여 팔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아울러 개인이나 단체가 공개적인 혹은 드러나지 않은 힘을 이용하여 이러한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을 법이 용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한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특정 상품에 대해 가격이나 물량을 통제하게 되면 각자의 노력을 유효하게 조정하는 경쟁의 능력은 박탈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가격의 변화가 변화된 모든 상황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게 되며, 그 결과 가격의 변화가 더 이상 개인의 행위를 나타내는 믿을 만한 길잡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시문 3>

전체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과 바다 같은 공유 자원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있다. 배제성이 없으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구나 공유 자원을 소비할 수 있는 반면, 경합성이 있으므로 누군가가 공유 자원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는 감소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유 자원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더 많이 소비하려고 경쟁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공유 자원은 쉽게 남용되어 필요한 양보다 과다하게 소비하게 되고 고갈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대해 일부 공동체주의자는 공동체적 해법이야말로 인간의 본성에 가장 걸맞은 자연스러운 해법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게 자연은 “적자생존” 혹은 “피로 물든 이빨과 발톱” 등으로 묘사되어온 생존 경쟁의 장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은 상호 부조의 감정이야말로 수십만 년에 걸친 집단생활을 통해 그리고 지난 수천 년의 사회생활을 통해 배양된 것이며, “전쟁터에서처럼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상태가 아니라면” 상호 부조의 감정은 거스를 수 없는 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본성에 기댈 수만은 없으며 적절한 유인이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가 필요하다. 적절한 제도 하에서는 자신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적절한 제도란 물질적 이득을 추구하는 개인을 외적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강제하는 장치가 아니라 상호 신뢰를 통해 서로를 규제할 수 있는 견제 장치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인간은 협조하려는 상대방의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이에 협조로 응답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다른 누군가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 자기 일처럼 나서서 이를 제어하려는 의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바다가재를 잡는 지역의 어부들은 바다가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은 좋은 생각을 해냈다. 공동체를 결성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망의 숫자를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다른 사람이 어망을 더 설치하는 것을 서로 감시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어망을 설치하는 어민이 사라졌고 결국 바다가재의 숫자를 늘리는 데 성공했다. 만약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어망을 제한했다면 여러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부 어부가 경비정 몰래 바다가재를 제한 없이 잡다가 경비정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기 위해 그물을 끊고 도망가는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부들이 자율적으로 제한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불법 조업이 자취를 감추었다.

공동체를 토대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군가는 낡은 이념으로, 다른 누군가는 유토피아적 이념으로 여긴다. 그러나 많은 경우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감시하고 상호 제재하는 것이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공동체 구성원은 외적 권위체가 갖지 못하는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상호 신뢰를 기초로 서로를 규제해가면서 비극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 4>

경쟁을 통해 각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기도 하지만 경쟁에서 진 쪽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경쟁이란 본질적으로 '차가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경쟁관계의 두 기업이 일시적으로 협력하거나 다양한 방식의 협력관계를 경쟁 속에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역설적인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경쟁하다가도 경쟁자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적 공급자로 위치가 일시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 협력을 도입하여 경쟁의 형태가 간접적인 것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다른 두 기업과 각각 독립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하여 양쪽의 파트너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 질 수도 있다. 판매에서는 경쟁하지만 연구 및 개발에서는 잠정적으로 협력한다거나 아예 부서를 나누어서 어떤 부서에서는 협력을, 다른 부서에서는 경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부분적 협력이 진행될 수도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기술 혹은 산업간 융합이 일어날 때, 그리고 기업 규모가 작아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 경쟁자와 협력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럼에도 경쟁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독점보다는 경쟁 상황일 때 연구개발 등 혁신 활동에 더 많이 투자할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 차원에서 보면 경쟁이 심해질수록 사회생활의 접촉대상이 되는 타인은 실재적 혹은 잠재적 경쟁대상으로만 간주될 것이며 이러한 사고가 팽배할 때 휴머니즘을 토대로 한 사회적 친화력을 견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제사상가들은 경쟁이 국부의 증대에 기여하지만 사회적 동질성과 도덕을 잠식한다는 지적을 자주 해 왔다. 이런 문제를 고려할 때 제기되는 과제는 한편으로는 경쟁의 기능을 계속 살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이 유발하는 비인도적인 측면을 약화시킬 수 있는 '황금의 중도'를 설정하는 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을 위시한 몇몇 서구국가들이 도입한 사회적 시장경제 제도는 바로 그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형성된 것이었다.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토대로 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하는 차가움이나 사회·경제적 역기능을 극소화하자는 것이다.

최근 들어 과거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수정하여 안정과 형평 내지는 삶의 질을 조화시키겠다고 선언하는 국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의 기본적 가치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표출되는 다양한 갈등은 사회적 제어능력을 벗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공존 원리로서의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휴머니즘을 기저로 하는 사회적 삶의 실존과 조화되는 규범을 마련하는 토론의 장에 모든 사회 구성원 혹은 이익집단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최근 폭발적으로 분출되는 다양한 욕구·견해·주장 등은 아마도 새로운 질서창출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불가피한 진통일 것이다.

3. 출제 의도

[문제 1]의 출제 의도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 주어진 주제에 대해 논리적으로 분석, 사고하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논술하는 능력을 어느 정도 함양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문항은 사회의 상호 작용 방식에 관한 대립적인 두 입장인 협력 중심 관점과 경쟁 중심 관점을 구분하고 요약하는 것으로, 두 입장의 성격과 특성을 이해하고 각 입장이 지닌 한계 혹은 문제점을 이해,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 국어
<table>
<tr><td colspan="2">과목명: 독서</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td><td>[문제 1] 제시문 1, 2, 3, 4</td></tr>
<tr><td colspan="2">과목명: 화법과 작문</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 1] 제시문 1, 2, 3, 4</td></tr>
</table>
2. 교과명 : 사회
<table>
<tr><td colspan="2">과목명: 경제</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td><td>제시문 1, 2, 3, 4</td></tr>
<tr><td>성취기준 2</td><td>[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td><td>제시문 3</td></tr>
<tr><td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td><td>제시문 1, 2, 3, 4</td></tr>
</table></td></tr>
</table>

나) 자료 출처

교과서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김상호 외	미래엔	2022	72	제시문 3	예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협력의 진화	로버트 액설로드	시스테마	2006	205-207	제시문 1	예
노예의 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자유기업원	2021	76-77	제시문 2	예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제3의 길	최정규	한겨레	2017		제시문 3	예
쉽게 배우는 경제학	김상택	민음인	2010	125-132	제시문 3	예
The interplay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호프만 외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18	3033-3052	제시문 4	예
경쟁사회의 기능과 역기능	중앙일보	중앙일보	1988		제시문 4	예

관련 교과서 근거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김상호 외	미래엔	2022	22	제시문 2	예
통합사회	이진석 외	지학사	2021	140, 146, 147	제시문 1, 2, 3, 4	예

5. 문항 해설

[문제 1]은 고등학교 '통합 사회', '경제' 교과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주장이 담긴 4개의 제시문을 협력 중심 입장과 경쟁 중심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의 핵심 논지를 종합하여 요약하는 문제이다. 총 4개의 제시문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것으로 협력 중심 또는 경쟁 중심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의 요구에 따라 제시문을 정확하게 이해, 분류하고 그 요지를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 및 관련 서적에서 발췌해 출제진이 재구성하였다. 각 제시문의 난이도는 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지문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험생들의 정확한 분류 및 요약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제시문의 분류와 요지는 아래와 같다.

(i) 협력중심: 제시문 1, 3

제시문 1) 협력은 개인이나 사회적 환경의 특성과 관계없이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번성할 수 있는 상호 작용 방식이며, 협력이 성장하고 유지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제시문 3) 사회 구성원은 상호 신뢰를 통해 서로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자신과 공동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다.

통합요약: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협력은 성공적인 상호 작용 방식으로 유지되고 번성할 수 있으며, 상호 신뢰와 상호 규제를 기반으로 할 경우 협력은 효과적인 사회 문제 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

(ii) 경쟁 중심: 제시문 2, 4

제시문 2)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려면 일정한 법적 틀은 필요하지만, 경쟁은 권력의 간섭 없이도 개인의 노력을 끌어내고 조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제시문 4) 과도한 경쟁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인도적인 측면을 약화시키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경쟁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 기업이 혁신에 더욱 집중하도록 유도하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보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통합요약: 경쟁 체제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경쟁은 외부 강제 없이 개인의 노력을 끌어내고 조정하며 기업을 혁신에 집중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것이다.

좋은 답안 작성의 핵심은 '협력'과 '경쟁'이라는 핵심 주제어를 중심으로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과 근거를 정확하게 포착하여 '협력이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 방식'이라는 협력 중심 입장과 '경쟁이 우월한 사회적 상호 작용 방식'이라는 경쟁 중심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에 속한 제시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분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시문을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입장의 내용을 명확하고 적절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입장 및 중심 논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을 하나의 통일된 글로 요약, 정리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두 입장의 내용이 해당 제시문의 내용을 포괄하여 잘 정리하였다면 감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각 제시문의 내용을 잘 요약했더라도 이를 종합하여 서로 다른 두 입장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지 못했다면 감점해야 한다. 반면 논지 정리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사이의 논점 차이까지 적절히 고려하여 글을 작성한다면 우수한 답안이라 할 수 있다.

*** 적절하지 않은 분류 사례**

1) 제도를 통한 상호작용(2, 3, 4)과 제도를 통하지 않은 상호작용(1)
: 제시문 1에 제도를 통하지 않고 상호 작용한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음

2) 국가의 강제적 개입(4)과 개인 간의 자율적 방식(1, 2, 3)
: 제시문 1은 이에 대해서도 명시적 언급이 없음. 제시문 4도 해결 방법의 하나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노력한 사례를 언급했을 뿐이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을 더 강조하고 있음.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채점 포인트 ① 제시문을 정확히 분류하였는가? ② 두 입장의 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③ 두 입장의 요지를 통합적으로 잘 요약하였는가? **-채점 기준** A: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두 입장 간의 차이점만이 아니라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간의 차이점까지도 부각하고 있는 답안 B: 제시문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두 입장 간의 차이점 혹은 같은 입장으로 분류된 제시문 간의 차이점을 충분히 부각하지는 못한 답안. C: 제시문 분류는 올바르게 하였으며 각 제시문에 대한 요약은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같은 입장으로 분류한 제시문을 종합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아예 서술하지 않거나 제대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D. 제시문 분류는 잘못했으나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답안 E. 제시문 분류도 잘못하고 두 입장의 핵심 논지 서술도 제대로 안된 답안 F: 백지 답안 또는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40

7. 예시 답안

<제시문 1>과 <제시문 3>은 협력적 상호작용 방식을, <제시문 2>와 <제시문 4>는 경쟁적 상호작용 방식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협력적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입장에 따르면 호혜주의에 바탕을 둔 협력은 성공적인 상호 작용 방식으로 유지되고 번성할 수 있으며, 상호 신뢰와 상호 규제를 기반으로 할 경우 협력은 효과적인 사회 문제해결 방식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문 1>은 개인이나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 없어도 협력은 배태될 수 있고, 온갖 다양한 전략이 뒤섞여 있는 환경에서도 번성할 수 있으며, 또 일단 자리를 잡은 뒤에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다. 심지어 이기주의자한테서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제시문 3>은 '공유지의 비극' 상황을 경쟁의 방식이나 위로부터의 강제적 방식이 아닌 협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협조하려는 상대방의 의지가 확인되면 언제든지 이에 협조로 응답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고, 상호 감시하고 상호 제재하는 적절한 제도를 자율적으로 갖추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제시문 1>은 협력의 유지와 성장이 어렵지 않음을 강조하는 반면, <제시문 3>은 협력적 방식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우월한 방식임을 주장하고 있다.

경쟁적 상호 작용을 강조하는 입장은 경쟁 체제의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지만, 경쟁은 인간의 행위를 외부 강제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제시문 2>는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개별적 노력의 좋은 길잡이가 된다는 측면에서 경쟁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이 가장 효율적일 뿐 아니라 권력의 강제적이고도 자의적인 간섭 없이도 개인의 행위를 끌어내고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우월한 방법이라고 본다. <제시문 4>는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협력관계를 맺

는 경우들이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도입일 뿐이고 근본적으로는 경쟁이 기업을 혁신하게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경쟁의 부작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형평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시장경제의 기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결국 <제시문 2>가 경쟁이 개인의 개별적 노력을 조정하는 우월한 방법임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면 <제시문 4>은 경쟁이 사회의 토대가 되어야 함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면서도 경쟁의 한계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협력을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항카드 5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2교시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화법과 작문, 경제,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협력, 경쟁
예상 소요 시간	4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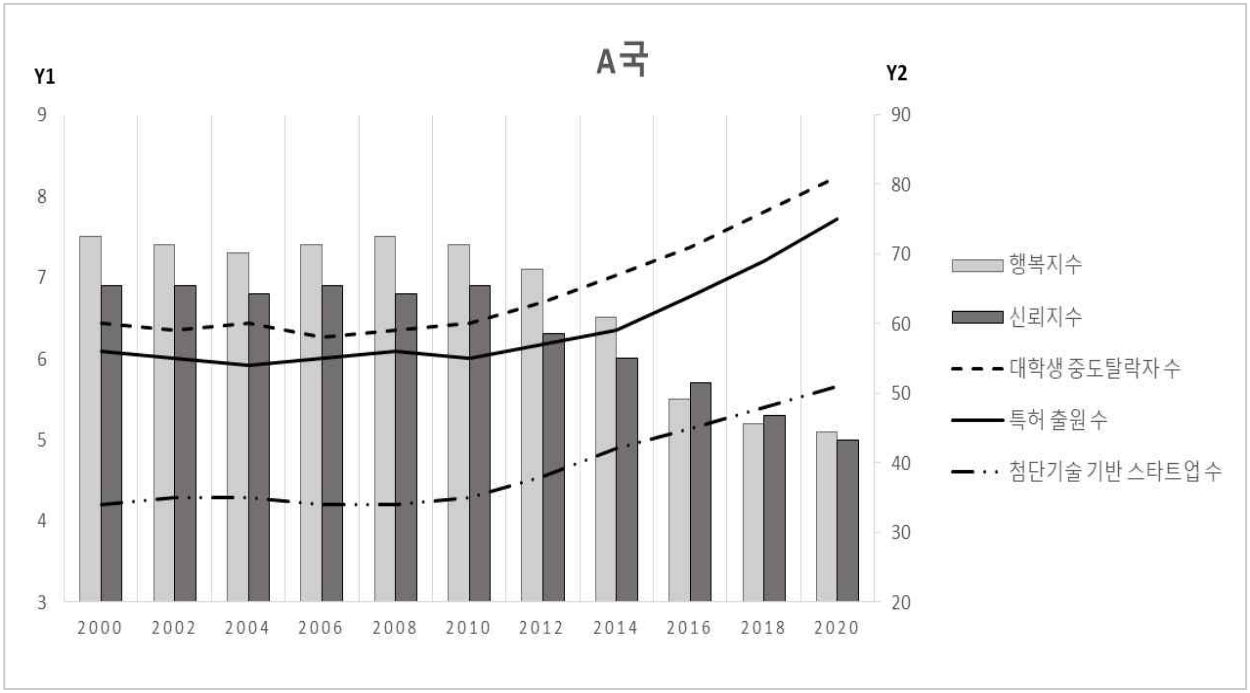
[문제 2] A와 B 두 국가는 2010년에 대학교육제도의 개혁을 시행하였다. <자료1>은 제도 개혁 시행 시점과 시행 10년 후의 설문조사 결과이며, <자료2>는 대학교육제도 개혁 10년 전후의 사회 현상에 대한 자료이다.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국가 A와 B의 사례가 각각 [문제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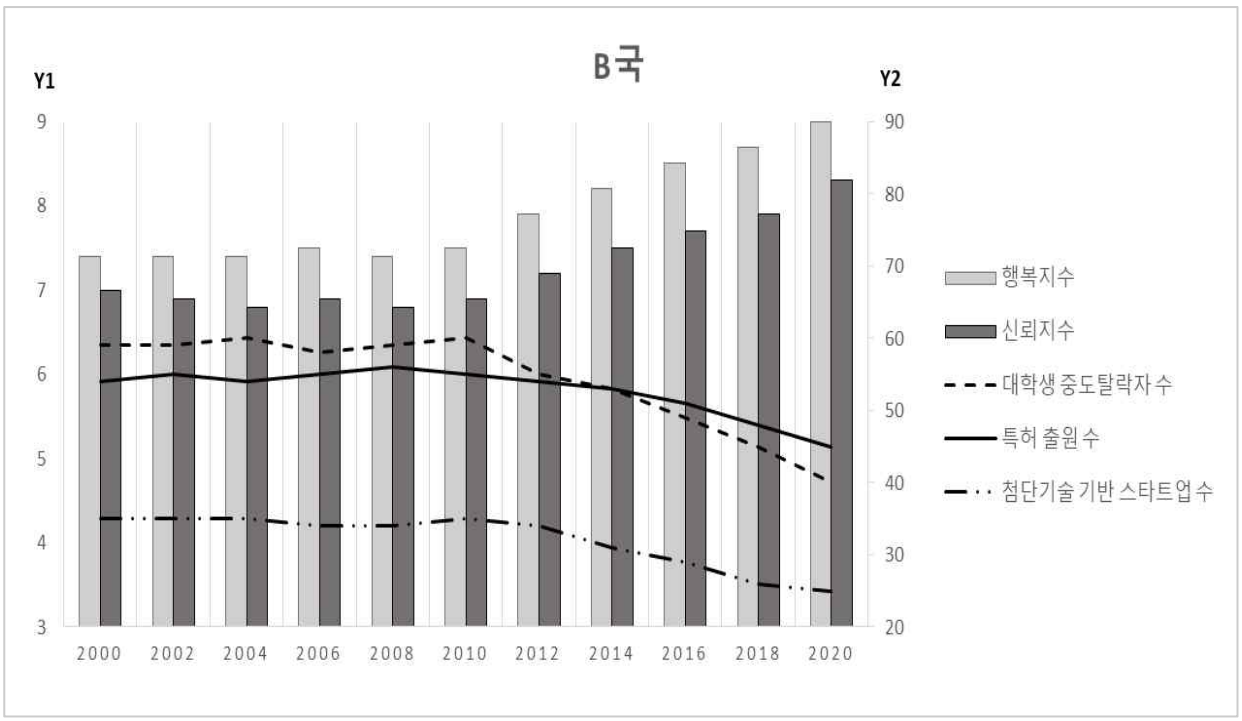
<자료1> 대학생 행동양식 설문조사 결과 (국가별 1,000명)

응답	A국		B국	
	2010년(%)	2020년(%)	2010년(%)	2020년(%)
친한 친구들에게만 잘 답해 줄 것이다.	14.8	23.2	14.9	16.1
모두에게 잘 답해 줄 것이다.	50.0	28.3	51.0	71.2
누가 물어보더라도 잘 답해주지 않을 것이다.	35.2	48.5	34.1	12.7
계 (%)	100.0	100.0	100.0	100.0

주1) '다른 학생들의 학습 관련 질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에 대한 응답

<자료2> 사회현상 지표





주2) 행복지수: 전반적 삶의 만족도(국가평균값, Y1축)
주3) 신뢰지수: 타인과 사회전반에 대한 믿음의 정도(국가평균값, Y1축)
주4) 대학생 중도 탈락자 수: 대학생 천명당(Y2축)
주5) 특허 출원 수: 단위 천개(Y2축)
주6) 첨단기술 기반 스타트업 수: 단위 천개(Y2축)
주7)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

3. 출제 의도

[문제 2]는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과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자료가 [문제 1]의 두 입장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 colspan="3">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 colspan="3">1. 교과명 : 국어
<table><tr><td colspan="2">과목명: 화법과 작문</td><td>관련</td></tr><tr><td>성취기준 1</td><td>[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 2]</td></tr></table>
2. 교과명 : 사회
<table><tr><td colspan="2">과목명: 경제</td><td>관련</td></tr><tr><td>성취기준 1</td><td>[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td><td>[문제 2]
자료 1, 2</td></tr><tr><td>성취기준 2</td><td>[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td><td>자료 1, 2</td></tr><tr><td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d><td>관련</td></tr><tr><td>성취기준 1</td><td>[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td><td>[문제 2]
자료 1, 2</td></tr></table></td></tr>
</table>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22	106	[문제 2]	예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22	40	[문제 2]	예
경제	김종호 외	미래엔	2022	41~42	[문제 2]	예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전쟁터가 된 학교에 협력을 심는 길	김희삼	KDI	2017	40-41		예

5. 문항 해설

[문제 2]는 제시된 자료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과 그 결과를 종합하여 자료가 [문제 1]의 두 입장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료 1]은 대학교육제도의 개혁 전후 대학생의 사회적 상호 작용 방식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모두에게 잘 답해줄 것이다'는 답은 협력적인 태도를, '누가 물어보아도 잘 답해주지 않을 것이다'는 경쟁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답이다. '친한 친구들에게만 잘 답해 줄 것이다'도 친한 친구와는 협력하지만 그 외 사람은 다 경쟁상태로 보는 것을 의미하므로 경쟁적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설문 결과를 보면 A국가는 개혁 후 좀 더 경쟁적인 국가로, B국가는 개혁 후 좀 더 협력적인 국가로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2]는 개혁 전후 10년간의 ①행복지수, ②신뢰지수, ③대학생 중도 탈락자 수, ④특허 출원 수, ⑤첨단기술 기반 스타트업 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경쟁과 협력이 이 항목들에 미치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는 증가, -는 감소).

	①행복지수	②신뢰지수	③대학생 중도 탈락자 수	④특허 출원 수	⑤첨단기술 기반 스타트업 수
경쟁	-	-	+	+	+
협력	+	+	-	-	-

A국은 개혁 후에 좀 더 경쟁적인 국가로 변화하여 ①, ②는 감소하는 반면에, ③, ④, ⑤는 증가하고 있다. ④, ⑤의 변화는 경쟁국가인 A국의 장점이므로 곧 경쟁의 장점으로, ①, ②, ③의 변화는 A국의 단점이므로 곧 경쟁의 단점으로 볼 수 있다. B국은 개혁 후에 좀 더 협력적인 국가로 변화하여 ①, ②는 증가하는 반면에, ③, ④, ⑤는 감소하고 있다. ①, ②, ③의 변화는 협력국가인 B국의 장점이므로 곧 협력의 장점으로, ④, ⑤의 변화는 B국의 단점이므로 곧 협력의 단점으로 볼 수 있다.

답을 서술할 때 고려하여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 1>을 토대로 A국은 경쟁이 강화된 국가, B국은 협력이 강화된 국가임을 먼저 설명해야 한다. 둘째,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라고 했으므로 <자료 2>가 제시하는 5개의 항목을 답안에서 모두 언급해야 한다. 이 중 일부 항목만 언급될 경우에는 감점해야 한다. 셋째, 사례가 한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이 강화되면서 왜 ④, ⑤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협력이 강화되면서 왜 ①, ②, ③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여 ④, ⑤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A국은 경쟁 중심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①, ②, ③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B국은 협력 중심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답하면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그런데 A국의 단점(①, ②, ③)을 설명하면서 A국 사례를 협력 중심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B국의 단점(④, ⑤)을 설명하면서 B국 사례가 경쟁 중심 입장을 지지한다고 서술할 경우에도, [문제 1]의 두 입장이 경쟁과 협력의 장점을 강조하는 주장이긴 하지만 논리적으로 틀린 연결이 아니므로 감점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두 국가가 모두 한 입장을 지지한다고 답하는 답안은 감점해야 한다. 예를 들어 A국의 장점과 B국의 단점을 들어 두 사례가 모두 경쟁 중심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혹은 B국의 장점과 A국의 단점을 들어 두 사례가 모두 협력 중심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서술할 경우, 전자는 ④, ⑤만을 언급하게 되고, 후자는 ①, ②, ③ 만을 언급하게 되므로 자료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자료 1>을 통해 두 국가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② <자료 2>에서 두 국가의 사례가 경쟁과 협력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③ 각 자료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을 종합적으로 이용하고 서로 연계하여 설명하였는가? ④ 두 국가의 사례가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를 두 자료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는가? ⑤ <자료 1>과 <자료 2>에서 제시된 가정에 벗어난 현상이나 논리를 이용하는 경우는 오답 -채점 기준 A: <자료 1>과 <자료 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두 국가의 사례가 각각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충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답안 B: <자료 1>과 <자료 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두 국가의 사례가 각각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였으나 그 내용이 불충분하고 논리성이 다소 부족한 답안 C: <자료 1>과 <자료 2>에 제시된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국가의 사례가 각각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였으나 설명의 논거가 불분명하고 주장의 논리성이 현저히 낮거나, 한 사례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적절히 설명한 답안 D: <자료 1>과 <자료 2>에 제시된 현상은 정확하게 이해했으나 두 국가의 사례가 각각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모두 틀린 답안 E: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하여 두 국가의 사례가 각각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모두 틀린 답안 F: <자료 1>과 <자료 2>를 모두 부정확하게 이해했고 두 국가의 사례가 각각 [문제 1]의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답안	40

7. 예시 답안

<자료 1>에서 2010년 A국과 B국은 '모두에게 잘 답해줄 것이다' 응답이 반 쯤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양국 모두 상당 정도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였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육제도 개혁을 통해 2020년 A국은 '누가 물어보더라도 잘 답해주지 않을 것이다'의 응답이 절반 가까이로 증가하였고, B국은 '모두에게 잘 답해줄 것이다'는 응답이 이전보다 20% 정도 늘어났다. 이를 통해 A국은 경쟁이 강조되는 사회로, B국은 협력이 더 강조되는 사회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육제도 개혁으로 인해 변화된 A국과 B국의 사회 현상은 <자료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A국의 경우 행복지수와 신뢰지수가 감소하고, 대학생 중도 탈락자 수는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기긴 했으나 특

허 출원 수와 첨단기술 기반 스타트업 수가 증가하였다. 이는 대학 교육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보다 더 우수하고 적극적인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도 경쟁이 더 강조되면서 개인의 개별적 노력도 강화되고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혁신에 더 집중하려고 노력한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A국 사례는 [문제 1]에서 경쟁을 강조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B국의 경우 특허 출원 수와 첨단기술 기반 스타트업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행복지수와 신뢰지수의 상승, 그리고 중도탈락학생 수의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우선 중도탈락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경쟁이 줄어들고 협력적 태도가 증가한 대학 분위기로 인해 중도탈락의 잠재적 위험을 겪는 학생이 다른 학생의 도움을 통해 그 위험을 넘기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타인과 사회전반에 대한 믿음의 정도인 신뢰지수가 높아진 것은 호혜주의에 기초한 상호 부조가 강화되면서 배신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커지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를 표시하는 행복지수가 높아진 것은 경쟁이 약화되면서 양극화 현상이 줄어들어 구성원 사이의 상대적 박탈감이 약화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겠지만 앞서 말한 타인에 대한 신뢰감의 증가도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B국의 사례는 [문제 1]에서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항카드 6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2023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전형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 2교시/ 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경제, 통합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경쟁, 협력
예상 소요 시간	20분 / 전체 100분	

2. 문항 및 자료

[문제 3] C국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이전 성과를 평가하여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여론과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다.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본인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20점)

3. 출제 의도

[문제 3]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이전 성과를 평가하여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논의에 대한 학생 본인의 찬성 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지 밝히고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도록 한다. [문제 3]은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 문항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게 함으로써 이론적인 입장과 관련 자료를 구체적 쟁점에 적용하여 판단 근거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table>
<tr><td>적용 교육과정</td><td>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5-7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td></tr>
<tr><td>관련 성취기준</td><td>1. 교과명 : 국어
<table>
<tr><td colspan="2">과목명: 국어</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 3]</td></tr>
<tr><td colspan="2">과목명: 화법과 작문</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 1</td><td>[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 3]</td></tr>
<tr><td>성취기준 2</td><td>[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td><td>[문제 3]</td></tr>
</table>
2. 교과명 : 사회
<table>
<tr><td colspan="2">과목명: 경제</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td><td>[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td><td>[문제 3]</td></tr>
<tr><td colspan="2">과목명: 통합사회</td><td>관련</td></tr>
<tr><td>성취기준</td><td>[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td><td>[문제 3]</td></tr>
</table></td></tr>
</table>

나) 자료 출처

교과서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22	106	[문제 3]	예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22	40	[문제 3]	예
경제	김종호 외	미래엔	2022	41~42	[문제 3]	예

5. 문항 해설

[문제 3]은 제시된 쟁점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활용하여 선택 근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있게 제시하는지가 평가의 핵심이다. 해당 쟁점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에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제시문 1>과 <제시문 3>에서 파악한 협력의 긍정적 측면을 이 쟁점에 적용하여 기술 이전이 가진 순기능에 관해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답안을 구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호혜주의가 실현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 이익이 더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 2]의 자료에 나타난 협력의 긍정적 효과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협력이 상호 신뢰를 향상시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더 나아가 시장 경쟁에서의 낙오자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연결 지어 논의할 수 있다.

반면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에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학생은 <제시문 2>와 <제시문 4>에 나타난 경쟁의 긍정적 측면을 이 쟁점에 적용하여 기술 이전이 초래할 역기능에 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시장에 간섭할 경우 기업 간 경쟁이 약화되고 그로인해 혁신도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경쟁의 약화가 혁신과 관련된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2]의 자료과 연결지어 논의할 수 있다.

[문제 3]의 핵심은 학생들이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문제에 대해 [문제 1]에서 제시된 경쟁과 협력에 대한 일반 논리와 [문제 2]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이다. 또한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라고 하였으므로, 단순히 자신이 선택의 근거로 삼은 제시문과 자료만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제시문의 내용과 자료를 인용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까지 포함한다면 논제의 조건에도 맞고 내용이 풍부한 더 좋은 답안이 될 것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채점 포인트 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과에 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는가? ② 찬성 또는 반대의 근거들을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가? ③ 서술이 명확하고 논리적인가? ④ 채점자 본인의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채점해야 함 **- 채점 기준** A: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당화한 답안 B: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를 단편적으로 연결하는 데 그치고 주장의 체계성과 논리성이 다소 미흡한 답안 C: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D: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기는 했으나, 제시문과 자료를 잘못 연결하여 주장의 설득력이 낮고 논리적이지 않은 답안 E: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선택하여 답하지 않고,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과는 동떨어진 주장을 제시한 답안 F: E 등급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답안	20점

7. 예시 답안

1)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이전에 찬성하는 입장 (협력)

<제시문 1>은 협력의 조건으로 호혜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은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에게만 이득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대기업이 부품 공급을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대기업 또한 기술 이전을 통해 저렴하고 기술력 높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 이전을 통해 더 품질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료 3>의 B국 대학생처럼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런 상호 협력은 신뢰지수를 증진시켜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대기업에게 비용절감 효과를, 중소기업에게 경쟁력 강화와 기업 안정성 제고라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나아가 소비자도 그 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되어 모든 구성원에게 좋은 결과를 낳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 3>에 설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협력적 상호작용은 인간 본성에 기댈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인과 적절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유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협력적 상호작용 방식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2)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경쟁)

<제시문 2>에서 경쟁이 유익하게 작동하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된 법적 틀은 필요하지만, 그 작동을 훼손하거나 강제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기술 이전으로 이득은 없고 비용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유인하려는 정책은 경쟁에 기초한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훼손하는 정책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기술 이전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면 대기업은 이 손실을 중소기업이나 소비자에게 이전하려고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국 인센티브 제공이 사람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어 비효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제시문 4>와 <자료 2>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 상황 속에서 기업은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 등의 혁신에 더욱 노력하게 된다. 그러나 대기업이 오랜 시간과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일이 빈번해진다면 중소기업도 대기업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기술 혁신을 할 이유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더 이상 시간과 자본을 들여 기업 자체만의 기술을 개발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실험이 줄어든다면 사회 전반의 발전과 산업 성장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이전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은 결국 시장을 경쟁의 상태 그대로 두는 것보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